바람이 낳은 제주… 폭풍같은 나날 딛고

제주돌문화공원 내 누보 '폭풍 속으로 변시지'전 거칠면서 생동하는 필선 1980~90년대 대표작 9점

변시지의 '폭풍의 바다'(1990).

바람 타는 섬 제주의 삶과 풍경을 담아냈던 변시지 작가(1926~2013)의 '황톳빛 제주화'가 여름 전시장에 걸린다. 제주돌문화공원 내 누보(대표 송정희)에서 기획한 '폭풍 속으로 변시지'전이다.

송정희 대표는 변시지 화집 발간 이래 누보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변시지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그 두 번째인 이번 전시에는 변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폭풍치는 그림을 통해 만나도록 짜여진다.

전시 작품은 '풍파'(1988), '폭풍의 바다'(1990), '폭풍 속 귀로'(1997), '태풍'(1998) 등 9점에 이른다. 황갈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강렬한 붓터치로 변화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아우른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표현한 거칠면서도 생동감 있는 필선, 화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도, 작가의 힘과 에너지가 절정에 다다랐던 시절의 작품들로 변시지 작가가 '폭풍의 화가'로 불리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변시지 작가는 생전에 "내 작품에서의 폭풍은 독재정권 하의 시달림에 대한 마음 속 저항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었다.

이 전시에 대해 송정희 대표는 "화가 변시지는 생전에 제주는 바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변시지의 작업세계에서 바람이 갖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폭풍의 바다' 연작 중 걸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익재단 아트시지(이사장 변정훈)와 공동 기획한 전시로 오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에 누보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때는 작곡·피아노 문효진, 바이올린 김혜미, 첼로 이현지로 구성된 '트리오 보롬'이 출연해 '이어도사나 콘체르토' 등을 들려준다. 개막 행사 참여 예약은 064)727-779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만덕과 한라산이 전하는 깊은 위로

김만덕기념관 개관 5주년 채기선 작가 초대전 개최 '… 이어도를 꿈꾸다' 연작

채기선의 '한라산 이어도를 꿈꾸다'.

조선시대 굶주림에 처한 제주 사람들을 구했던 김만덕. 언제나 한자리를 지키며 제주땅을 굽어보는 한라산. 제주의 상징적인 두 존재가 만난다. 이달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달 동안 '한라산 화가' 채기선 작가를 초청해 마련하는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 개관 5주년 특별전이다.

이번 초대전은 '포옹-한라산과 이어도를 꿈꾸다'란 제목을 달았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온 한라산 그림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새겨보려는 뜻으로 기획됐다.

채기선 작가는 1996년 2월 어느날 한라산을 만난 이래 한시도 한라산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지금도 푸르고, 때론 붉은 한라산을 그리고 있다.

이 전시에는 '한라산 이어도를 꿈꾸다' 연작 30여 점이 나온다. 50호에서 500호 대작까지 웅장한 화면 안에 드러나는 한라산은 이상향인 이어도가 되어 우리를 이끈다.

김만덕기념관은 "저 멀리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의 불빛, 바다에 반사되는 달빛, 세상이 숨쉬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의 에너지, 곳곳에 솟아있는 오름과 섬들의 존재는 제주의 여인이자 의인인 김만덕을 연상시킨다"며 "잠시 세상과 떨어져 오롯이 한라산과 포옹하며 그것들이 전하는 위로와 안녕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김만덕기념관은 전시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V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4)759-6093. 진선희기자

제주·대구 음악인 만나 온라인 공연

음악협회 제주·대구시지회 기악·성악·관악앙상블 꾸며

제주와 대구 음악인들이 만난다. 이달 7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펼쳐지는 '2020 제주·대구 교류 음악회'다.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회장 허대식)와 대구광역시지회(회장 이치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관중 없이 아라뮤즈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제주와 대구는 2002년부터 인연을 맺고 해마다 교류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음악인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번 무대에는 소프라노 곽보라, 오보이스트 강석연, 바리톤 방성택, 색소포니스트 이상직, 트럼페터 한만욱, 피아니스트 한선민 등 대구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출연한다. 제주에서는 제주브라스퀸텟이 금빛 선율을 풀어낸다.

앞서 음악협회제주도지회는 이달 6일 오후 6시 아라뮤즈홀에서 제29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를 갖는다. 윤대건 강수인 구다은 김준영 김민규 학생 등 20여 명이 출연한다. 이 공연 역시 아라뮤즈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진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21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 ᄀᆞᆯ멘. "하르바지- 이번 ᄋᆞ름인 하영 더운덴 ᄀᆞᆯ앗수게양. 경ᄒᆞᆫ디 요지금 장마철이난 와싹 더왓닥 서누룽ᄒᆞ엿닥 ᄒᆞ염신게마씀."
하르바지 ᄀᆞᆯ멘. "기여게, 그추록 ᄒᆞ염실거여게."
ᄌᆞᆷ녀 ᄀᆞᆯ앐저. "저 웃드른 장맛비가 하영 왓젠 ᄒᆞᆯ데다. 천동광 베락도 치곡."
하르바지 ᄀᆞᆯ멘. "ᄌᆞᆷ녜야- 장마철인 비도 하영 오곡 ᄇᆞ름이 더 불곡 ᄒᆞᆫ다. 웅ᄒᆞᆫ 날 ᄒᆞ루헤원 집이 이시민 하간 소리덜 들어질거여. 비가 죽장 올 땐 빗소리도 실피 들어질 거곡 ᄒᆞ난, 그 빗소리가 얼메나 정겨운지를 셍각ᄒᆞ여 보라. 그추록 ᄒᆞ민 빗소리가 나 ᄆᆞ심에 들어왕 느량 나 거가 뒈느녜."

*** 제주어 풀이**

*하영 더운덴 : 많이 더워진다고.
*ᄀᆞᆯ앗수게양 : 말하였지요. *ᄒᆞ염신게마씀 : 하고 있네요.
*ᄒᆞ염실거여게 : 하고 있을 거야.
*웃드르(난산, 산촌, 중산간) : <이름> 바닷가와 가까운 일주도로와 멀리 떨어져 한라산 쪽에 가까운 지방. 중산간 지방.
*ᄇᆞ름이 더 불곡 ᄒᆞᆫ다 : 바람이 더 불기도 하지.
*웅(이영, 영, 이웅) : <어찌> 이렇게. (영영-이영이영, 이렇게 이렇게)
*ᄒᆞ루헤원 하간 소리덜 들어질거여 : 종일 여러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실피 들어질 거곡 ᄒᆞ난 : 실컷 들을 수 있으니.
*ᄆᆞ심에 들어왕 : 마음에 들어와서.
*느량 나 거가 뒈느녜 : 늘 내 것이 되지.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방과후 돌봄 현황과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토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달 10일 오후 2시 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현안 대응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의 초등 방과 후 돌봄 사례와 타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에서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선 손태주 연구위원이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박수진 서울시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공동단장이 '서울 강북지역 마을 안에서의 방과후 틈새 돌봄' 사례를 나눈다.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 김진훈 제주도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명선 종달초 교장, 박미란 구좌읍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장,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김인영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인원만 참석 가능하다. 사전 참가 신청 문의는 064)720-4943. 진선희기자

2020 대구시청 COVID-19 방역솔루션
바이러스 방역솔루션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 공기에 의한 COVID-19 확산 감염 인정 -

청사주출입구 설치용

사무실, 교실, 가정용

공항터미널 방역(이미지컷)

PLASMA CLINIC
- 공기 및 사물표면 완벽 살균
0.44초 - 바이러스의 DNA 및 RNA를 파괴
[공기 및 사물의 표면 살균]
[세계보건기구가 인가한 유럽국립 미생물연구소 인증기술]
세계특허기술의 친환경 기술
-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공기 중 원인 균 제거

HANKOOK PLASMA
주)한국플라즈마 제주센터 064)744-2003
휴안개발(주) 064)749-7799